

권오록 고문과 권광택 부회장 및 권오덕 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권오록 고문(오른쪽)



권오덕 회장



권광택 부회장(오른쪽)

권오록 고문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상북도에 5억원을 기부하였고 능동성역회를 위해 1억원을 기증하여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다.

권광택 부회장은 코로나 퇴치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대구광역시에 1억 원 상당의 살균소독제를 기증하여 안동권문의 명예를 드높였다.

권오덕 중국 청도 안동권씨 종친회장은 중국 회원은 물론 미국과 아프리카 회원들로부터 830만원의 성금을 모아 안동권문의 본향인 안동시에 살균소독제를 기증하여 애족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대종회에서는 100만 족친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했다. 권오덕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2020년도 종무위원회·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2020년도 종무위원회 및 이사회 연석회의가 5월 19일(화) 11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권영의 수석부회장이 임시의장이 된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5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권해우 회장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권해우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데 또다시 회장으로 추대하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비록 능력은 없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임기가 5월 정기총회일로 만료되어 사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만약 종친회에 기여할 분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그만 두도록 하겠다. 종친회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2020년 제1차 상임위원회가 대종회 3층 대회의실에서 권건중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는 5월 27일(수)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장 추천 건과 예산 결산 승인 건, 공로패 증정 건, 장학생 선발 건, 정관 개정안 심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공로패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5억을 기부한 권오록 고문과 충청북도 적십자사와 대구시에 1억 상당의 살균소독제를 기증한 권광택 부회장 그리고 안동권문의 본향인 안동시에 살균소독제를 기증한 중국 청도 안동권씨 종친회 권오덕 회장에게 증정하기로 의결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등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6명에게는 당선축하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했다. 장학생은 경상대 권석영 양 등 1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에서는 김포 위답, 회장 선임, 명예회장,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등에 대해



심의를 했다. 특히 수석부회장 중 1인은 안동지역 종친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고 심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권해우 회장을 제18대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이 너무 촉박한 측면이 있어 정기총회 개최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정관에 명시한 정기총회 일정을 누구도 연기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경상대 권석영 양 등 11명에게 대종회 장학금 전달



권해우 회장은 경상대 권석영(여), 인천대 권유정(여), 영남대 권오균(남), 숙명여대 권소연(여), 부산대 권미영(여), 순천향대 권경환(남), 강원대 권서현(여), 미국 BCIT 대 권도완(남), 동아대 권예림(여), 동서대 권해원(남), 호남대 권하영(여) 등

11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족친들이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했으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전보다 1명이 더 많은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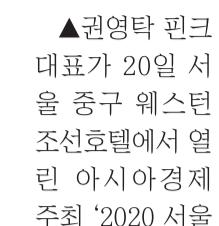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별세

권재진(67·대종회 고문, 복야공파 36세)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암 투병 중에 별세했다. 권 전 장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북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고 2011년 제62대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장자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보숙씨와 장남 권석현(김앤장법률사무소)씨 와 차남 권석재(중앙대학교)씨가 있다.



동정



▲권영탁 편크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제 주최 '2020 서울 아시아금융포럼(SAFF 2020)'에서 '오픈뱅킹, 그리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강연했다. 편크는 하나금융그룹의 팬테크 계열사로 2016년 SK텔레콤과 합작해 출범했다. 권영탁 대표는 2019년에 대표 이사에 취임했다.



▲권율정 부산 보훈청장은 "부산이 애국애鄉의 도시이지만 정작 부산의 독립유공자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며 "부산에는 유엔기념공원과 중구 중앙공원 내 대한해협 전승비 등 총 65곳의 현충시설이 있지만 3·1 운동·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부산 독립운동사를 종합적으로 기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부산보훈청장 취임 전에 국립대전현충원장을 등을 역임했다.



▲권호열 박사가 제13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으로 7일 취임했다. 1991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기획평가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를 취득한 정보통신 분야 권위자이다. 권 원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29일까지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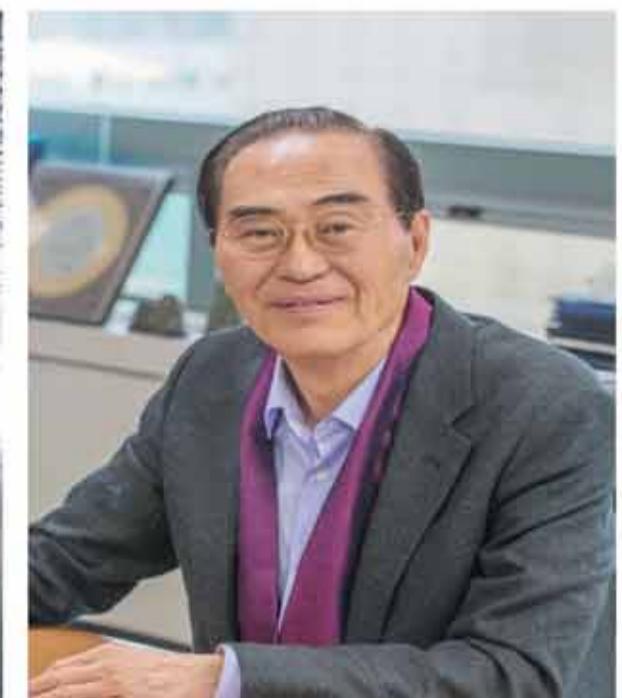


▲권정택(주밀공파 35세, 성균관전의 및 전례사) 대종회 부회장이 용강서원 원장직을 지난 7일 이임했다. 권정택 원장은 2015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봉직했다. 용강서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홍릉산 아래 총정공 박서, 조선 개국 초기 총신 총민공 박순, 영조 때의 문신 경현종 조상경 등 3위 위폐를 배향하고 있다.



▲권오룡(연세스타병원) 원장 취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 권영훈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문사(門事)에 열심적으로 참여해온 권영훈(權寧勳, 주밀공파 34세) 족친의 아들 권오룡(權五龍) 원장이 2020년 5월 11일 전문병원을 개원하였다. 병원은 성남시 신흥역(8호선) 인근에 위치한다.

50년 전통의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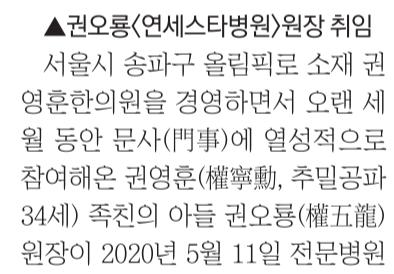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권 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한·중 민간 고위급 포럼과 하얼빈 안중근 동양 평화 문화축제를 운영하는 등 한·중 공공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권재준 경위(42)가 2020년 제98회 어린이날 '어린이 복지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장을 받았다. 권 경위는 매년 어린이날에 백혈병환우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헌혈증기부와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백혈병 환우 치료를 위해 170장 넘게 헌혈증을 기부해 왔고 봉급을 쪼개면서 모든 금액도 긴급생활비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권정택(주밀공파 35세, 성균관전의 및 전례사) 대종회 부회장이 용강서원 원장직을 지난 7일 이임했다. 권정택 원장은 2015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봉직했다. 용강서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홍릉산 아래 총정공 박서, 조선 개국 초기 총신 총민공 박순, 영조 때의 문신 경현종 조상경 등 3위 위폐를 배향하고 있다.



▲권오룡(연세스타병원) 원장 취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 권영훈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문사(門事)에 열심적으로 참여해온 권영훈(權寧勳, 주밀공파 34세) 족친의 아들 권오룡(權五龍) 원장이 2020년 5월 11일 전문병원을 개원하였다. 병원은 성남시 신흥역(8호선) 인근에 위치한다.